


보도자료

★ 2월 19일(수)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보도자료	
배포일	2024. 2. 19.	학교(기관)명	마산삼진고등학교
홍보담당관 (공보담당)	전화) 〇〇〇-〇〇〇〇	학교(기관)장	이미영
	팩스) 〇〇〇-〇〇〇〇	담당자	유상희(055)271-2172
붙임	사진(○), 영상(x)		

마산삼진고,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교원의 전문성 강화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실질적 논의 진행

마산삼진고등학교(학교장 이미영)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생 맞춤형 교육’, ‘교사의 성장이 곧 변화다!’, ‘신뢰를 쌓는 대화’, ‘최소 성취 보장을 위한 실천 방안’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었으며, 2월 18일(화) 마산관광호텔(마산합포구 수산1길 285)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교사 46명과 외부 초청 강사 2명이 참석해 고교학점제 운영과 학생 맞춤형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사의 전문성과 협력이 필수적"

개회사에서 이미영 교장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과목 선택 확대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사의 역할 변화 △학생 맞춤형 교육 설계 △최소 학업 성취수준 보장 지도 등의 핵심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연수와 함께 패널 토론이 진행되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사의 역할 변화 논의"

이성재 교사(온양한울고등학교)는 오전 연수에서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형성하는 소통법, 학습 동기 부여 전략, 그리고 학생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학년별·부서별 토론에서는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과 지도 방안을 논의하며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사의 역할 변화"

오후에는 이윤미 장학사(통영교육지원청)가 ‘학생 맞춤형 교육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학생 개별 학습 계획 수립, 선택 과목 확대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 학생 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학교 관리자, 교과교사, 각 학년 부장, 각 부서장, 교육 정책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고교학점제 시행 후 교실에서의 변화와 교사의 역할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패널들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가 수업 방식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방식 개편 및 피드백 강화 필요성 △교사의 업무 증가 해결 방안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한 1학년 담당 교사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다양성이 확대되는 만큼, 교사들도 새로운 수업 방식과 평가 방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소 학업 성취 수준 보장 지도 연수"

워크숍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소 학업 성취수준 보장 지도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윤미 장학사는 고교학점제에서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학업 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실제 사례와 지도 전략을 제시했다.

강의에 참석한 김학용 교무기획부장은 “학생들의 개별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지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이번 연수를 통해 실질적인 지도 방법을 배우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교사 협력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중요성 확인"

이번 워크숍을 통해 마산삼진고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교사 간 협력과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리자인 박서영 교감은 “이번 워크숍이 단순한 연수가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의견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이 다가온 가운데, 마산삼진고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업 성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 설명]



① 18일 오전 마산관광호텔 2층 대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워크숍을 열고 있다.



② 고교학점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주제: 마음으로 나누는 대화)
18일 마산관광호텔 2층 대회의실



③ 최소 학업 성취수준 보장 지도의 이해와 실제의 주제로 연수가 진행 중이다.

	<p>보도자료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산상진고등학교 유상희(☎055-271-2172)</p>
--	---